# 몸이 느낀 것에 솔직해도 좋은 이유

**황인택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전통적 국제정치학 또는 평화, 전쟁 및 안보에 대한 소위 '진지한' 연구의 입장에서, 몸과 같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것은 대개 연구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쟁에 대한 많은 연구는 마치 우주에서 지구의 전장을 내려다보듯이 전쟁에 접근한다. 우주에서는 피와 살점이 튀는 끔찍한 광경을 볼 수 없다. 여기서 전쟁은 주로 국경선이 그어진 지도와 숫자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략가들의 관점이고, 대개 전쟁의 향방은 이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런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전쟁이 대개 피와 살로 된 몸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군대가 숭상하는 가치와 관점이 사회 전반에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인 군사화 역시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몸은 대개 질병과 장애가 없으며, 단단한 근육으로 경계 지어진 젊은 이성애자 남성 군인의 신체이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떠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몸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런 이상적인 몸이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상상한다.

그런데 몸은 전쟁과 군사화에 단순히 동원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몸은 전쟁과 군사화에 저항한다. 전투 중인 군인의 몸은 참호를 뛰쳐나가 돌격하기를 거부하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진동에 굳어버린다. 훈련병은 훈련소에서 처음 총기를 수령했을 때 느껴지는 생경함과 공포감에 몸을 떤다. 또한 사람들은 학교, 직장, 심지어 훈련소에서 규율당하고 훈육 당할 때 피어나는 반발심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을 억압할 때 쾌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언어와 개념은 몸이 겪은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실패한다. 고통받는 몸을 사유하는 일레인 스케리(Elaine Scarry)에 의하면 고통은 가장 확실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개인적이어서,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1] 다만, 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타인이 겪는 고통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나의 몸이 반응한다. 타인의 고통에 영향을 받은 것, 몸으로 느낀 것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지하기 이전에 저질러진 일이다. 하지만,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석하는 일은 자의적이다. 이 경험을 붙들고 사유하는 것에 정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생소한 학문분야인 비판적 군사 연구(Critical military studies)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한다. 비판적 군사연구는, 예를 들자면, 전쟁박물관이나 전쟁 기념 행사가 식민주의에 기반한 군사주의를 어떻게 재현하고 강화하는지 분석하거나, 전장에 파견된 군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장애를 가진 군인들이 어떻게 성애적(sexual)으로 재현되는지 미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비판적 군사 연구는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생존의 문제에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 사실은 공동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적 군사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는 몸과 군사화의 관계이다. 특히 군대 예능(military entertainment 또는 militainment)은 몸을 군사화에 동원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과거의 군대 예능은 주로 "우정의 무대"로 상징되는 위문 공연의 형식이었다.

---

1) Scarry, Elaine. (1985). *The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하지만 9/11 테러가 촉발한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군사 예능은 점점 더 리얼리티 쇼 형식이 되어가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및 틱톡과 같은 개인 플랫폼을 통해 제작된 군대 예능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더 빠르고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시청자들이 군대와 전쟁에 대해 더 몰입하게 되고, 자신을 군인들과 더 동일시하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인의 정체성을 더 군사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플랫폼을 통해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군대 예능 프로그램은 2020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짜사나이"이다. "가짜사나이"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한국의 민간 군사 기업 무사트(MUSAT)가 제공하는 UDT/SEAL 훈련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콘텐츠이다. 공중파 방송국 MBC가 제작한 "진짜사나이"같은 기존의 군대 예능 프로그램들이 군대를 수련회처럼 보이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 "가짜사나이"는 UDT/SEAL 훈련의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한다고 주장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가짜사나이"는 '나태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는 서사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잔혹하다. 예를 들어, 교관들이 물 공포증이 있는 한 인터넷 방송인을 바닷물 속에 억지로 밀어 넣고 공포에 몸을 떨고, 침을 흘리고, 몇 차례나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가짜사나이"에 등장하는 몸들이 전달하는 날것의 잔혹함은 처음에 놀랍게 다가온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인터넷 방송인들을 향한 교관들의 잔혹함에 빠르게 동조하고 지지하기 시작한다. 즉, 처음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이 몸들은 쉽게 이해된다. 우선, 이상적인 군사화된 남성성을 표상하는 UDT 출신 교관들과 대비되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체력이 부족하고, 나약하며, 게으르고, 여러 면에서 열등한 '관심병사'와 같이 묘사된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과거 삼청교육대 및 형제복지원 등 갱생의 이름으로 부랑인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수용시설을 운용한 역사가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속에서 각자가 '자기 자신을 단련해 살아남아야 한다' 또는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기개발 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회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몸을 잔혹하게 '갱생'시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남성성들의 대비와 갱생의 역사를 통해 "가짜사나이"가 재현하는 몸들은 시청자들에게 쉽게 파악되며, 잔혹함에 놀랐을 시청자들을 군사화의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끌어들인다.

하지만 나는 화해와 평화를 사유하는 대안적 공간을 열기 위해 군사화의 훈육에 저항하는 몸들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몸이 있다.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을 위태롭게 하고, 따라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가 기초하고 있는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동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세기 넘도록 이들을 범죄자화 하고 투옥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무기를 들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군사정권에서도 꾸준하게 종교적 및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꾸준히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스스로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또한 비정부기구로서 병역거부운동을 조직하고 후원해 온 "전쟁없는 세상" 및 다른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역거부가 커다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병역거부운동의 초기에는 인권 의식이 아직 높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 사회에 비교적 무해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주로 평화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시간

이 지나며,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하며, 성평등과 퀴어 정체성,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려, 가부장제와 관련된 개인적 트라우마 등을 병역거부의 이유로 들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거부하면서, 국가가 그들을 순종적인 시민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 나는 무엇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는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나는 2010년에 개봉한 강상우 감독의 자전적 영화 "백서"에 주목한다. 강상우 감독은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으며 본인이 왜 병역을 거부하는지 밝히는 소견문을 대신해서 재판부에 이 영화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백서"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해 보이는 청년 "성운"의 하루를 따라가는 내용의 영화이며, 특히 병역거부 소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그려내고 있다. "가짜사나이"가 이상적인 남성성과 부진한 몸에 대한 잔혹한 폭력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시청자들을 군사화하고 있다면, "백서"는 수동적이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 신체를 재현하고 있다. 다음은 내가 "백서"를 감상하며 작성한 노트의 내용이다.

노트1: 달팽이는 느릿하게 기어간다. 성운은 깊은 낮잠에 잠겨 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하며, 어둑하다. 우편배달부가 문을 두드린다. "등기에요." 편지를 뜯어본 성운은 곧장 밖으로 나가, 거리에 버려진 냉장고 위에 걸터앉는다. 아마 입영 통지서일 터였다.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지쳐버린 눈빛으로 길고양이들을 따라간다. 그는 말보로 레드를 꺼내어 불을 붙인다.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거리를 걷는다. 발걸음엔 방향도, 목적도 없어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병역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겠지만, 이제 성운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뭔가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다가오는 곤경 앞에 서 있는 성운의 수동성과 걱정을 감지한다.

노트2: 성운은 거리로 걸어 나온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시의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그 속에 깃든 분노를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종이 인형처럼 가냘픈 몸이 도시의 혼잡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는 계속 걸음을 옮긴다. 주황빛과 푸른빛이 뒤섞인 저녁 속으로. 숨이 가빠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입술 사이를 흘러나온다. 내가 또렷하게 들은 것은 단지 이 한마디뿐이었다. "축구 못한다고 또 팰거잖아. 앉아 있으면 호모인거야?" 그 중얼거림은 아마 학창 시절의 기억과 관련 있겠지, 혹은 군대에 가면 억지로 축구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

노트3: 홀로 방 안에 앉아서 성운은 메모지 위에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를 적어 나간다. 그러나 몇 줄을 채우지 못한다. 가끔씩 기침이 터져 나온다. 창밖에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음이 귀를 파고든다. 반지하방이지만, 낮에는 의외로 햇빛이 넉넉히 스며드는 듯하다. 이제 성운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담요를 덮은 채 몸을 뉘였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눈을 뜬 순간에는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한다. 그는 잠에 빠져드는 듯하면서도, 아닌 듯 경계에 머물러 있다.

이 노트가 보여주듯이, "가짜사나이"가 제안하는 강건함, 프라이드 및 남성성은 "백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백서"가 일본 사회학자 도미야마 이치로가 말한 '폭력을 예감하며 공포 속에 몸을 웅크린 상태'를 전달한다고 본다. 이 상태는 '살해된 시신 옆에 서서 곧 내 차례가 올 것을 직감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상태'인데, 도미야마는 이 개념을 20세기 초 일본 본토에서 거주하던 조선인과 오키나와인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해야 했던 죽음의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다.[2] "백서"에서 성운은 감옥행을 기꺼이 택한 이의 확고한 결심, 의지 또는 용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기소, 재판, 감옥으로 이어질 일련의 폭력을 예감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방황하는 그의 몸은, 그러한 "웅크림"의 감각을 한층 심화시킨다.

2) 도미야마, 이치로. (2009).『폭력의 예감』(손지연, 김우자, & 송석원, 역). 서울: 그린비; 도미야마, 이치로. (2015).『유착의 사상: "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심정명, 역). 파주: 글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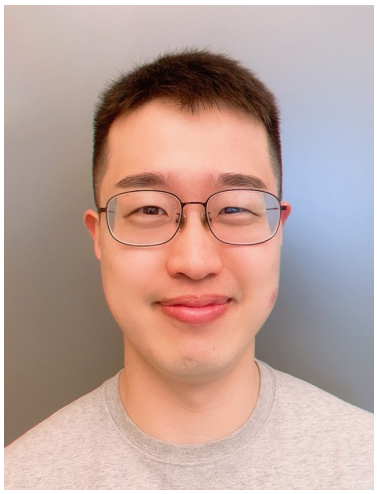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롭게도, 도미야마는 웅크린 자의 비겁함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며 떠는 몸의 웅크림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육체적 취약성에 공감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핵심은 그 '취약하고 비겁한' 몸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음의 가능성과 자명해보이는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있다. 특히 도미야마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잠재력은 상처를 입거나 타인을 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겁쟁이를 추방하고 죽음의 각오를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해가는, 그런 가능성에 미래를 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미야마를 따라서 나는 "백서"에 나타난 성운의 몸에 주목하는 것이, "가짜사나이"가 재현하는 군사화된 남성성으로부터 탈주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백서"는 성운의 수동적인 몸을 보여준다. 그 몸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며, 어떤 결심이나 완결의 순간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짜사나이"가 제시하는 단단한 몸들과 달리 "백서"에서 성운의 몸은 심란함, 모호함 그리고 결정되지 않음의 느낌을 준다. 특히 나는 이 모습이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변화된 풍경과 연결된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 병역거부 운동의 중심은 국가 폭력 앞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감옥에 가는 남성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종종 굳건한 의지를 가진 용감한 '남성 영웅'으로 칭송받았다.[3]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병역거부자들은 떨리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군대의 공격적 남성성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섬세하고 여성스럽기 때문에 또는 퀴어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소견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비겁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대신에 두려움, 나약함 및 여성성 등을 긍정하는 것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해왔다. 이 점에서 영화 "백서"가 재현하는 성운의 몸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몸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다. 즉, 확고한 결심이나 자부심, 단호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방황하며 결정을 미루는 '비겁한' 수동성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삶을 이어갈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백서"가 재현하는 몸은 삶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타자에게 쉽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로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끄럽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을 곱씹어보는 것이 타자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대안적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에 필요하다고 암시한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감각한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솔직해진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군사화 과정으로부터 탈주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3) 전쟁없는세상. (2022). 『2022 병역거부운동 여성활동가 인터뷰집』. 서울: 전쟁없는세상.

## 필자 소개 황인택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황인택은 평화학, 비판안보이론, 정동정치 및 시각자료분석을 연구하고 있으며,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Critical Military Studies, Peacebuilding, Critical Studies on Security 등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핀란드 탐페레대학교 탐페레평화연구소(TAPRI)에서 평화와 분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강사로 재직 중이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031-5176-2332 | FAX: 031-624-4751 | Email: tongil@snu.ac.kr